



Original Article

##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Choi, Myung Sook<sup>1)</sup> · Ha, Na-Sun<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Seoul College

##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최 명 숙<sup>1)</sup> · 하 나 선<sup>2)</sup>

1) 서일대학 간호과 조교수 2) 서일대학 간호과 부교수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of sex, sexual autonomy and the need of sex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sex information.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6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6 to December 5, 2003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Result:** The respondents' score of sexual knowledge was relatively low as 53.7 mean score on the basis of 100. However, the scores of sexual knowledge related to masturbation, induced abortion, and contraception were relatively high. The respondents' score of sexual attitude was 3.09. The respondents' score of sexual autonomy was 3.89. The percentage of subjects that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was 41.6%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utonomy and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utonomy depending upon the experience of coitus.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 need of sex education in college. **Conclusion:** An integrated sex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contents must have a concrete and honest education which is appropriate to college students.

**Key words :** Sexual knowledge,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Sex experience, College student

### 서 론

오늘날 서구의 성 개방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 대중매체를 통한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기간으로 사춘기를 지나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며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

\* 본 연구는 서일대학 2003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il College research fund in 2003.

투고일: 2004년 9월 13일 1차심사완료일: 2004년 10월 21일 최종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3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Myung-Sook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 49-3, Myoenmok-Dong, Jungrang-Gu, Seoul 131-702, Korea

Tel: +82-2-490-7514 Fax: +82-2-490-7225 E-mail: yeoneun@seoil.ac.kr

대학입학전과 후의 성관계 경험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대학입학 전에 비해 대학입학 후 성관계 경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Yoon, & Lee, 2002). 특히 입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로 그들만의 양식을 형성해가는 대학연령층의 성문제는 현대사회 성문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과 비공식적 경로인 잡지, 비디오, 영화, TV, 컴퓨터를 통한 성에 대한 내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성(sex)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이 왜곡되고 상업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년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대중매체 지배적 문화 속에서 성 유희적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적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Kim, J. E., 1999; Lee et al., 1997). 대학생들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1994; Lee, 2002), 혼전 성교에 대해서는 전체 남자 대학생의 92%와 전체 여대생의 63%가 혼전 성관계에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Jeon, 1999). 또한 성관계 경험은 시대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52.2%, 55.9%, 46%, 48.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6.7%, 12%, 17.4%, 17.9%, 22%로 남학생보다 월등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1983; Lee, 1994; Park, Lee, Park, & Jeoung, 1995; Han & Ham, 2000; Jung, 2003). Lee(1994)는 서울시내 대학생 50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상자의 31%가 성교경험이 있으며 성교경험자 중 10.5%는 성병경험이 있으며 12.6%는 임신경험, 9.4%는 유산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2002)은 대학생 320명을 조사한 연구결과 성지식 점수는 61.6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28.4%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관계 경험자 중 5.5%가 성병경험이 있으며 성관계 경험자 중 18.7%가 임신경험과 유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개방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성지식은 낮으며 여학생의 성관계 경험율은 점차 상승하여 성문제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Park(2002)의 연구결과 성지식과 성태도, 성경험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경험이 많고 성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성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지식이 낮을수록 성태도는 보수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통해 성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성지식 점수가 낮고 성태도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친구들의 성경험 동기를 조사한 Han과 Ham

(2000)의 결과 221명중 21.2%가 강제로 끌려서나 피임에 빠져서 성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나타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가 임신, 인공유산, 성병 감염 등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요인이라 볼 때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자율성이란 자신이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말하며 앞으로의 성교육은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지식과 성행동에 있어 성관련지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원치 않는 성교나 원치 않는 임신,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강조하여 성적자율성이 획득 되도록 해야 하겠다(Chang, 2002; Mackenzie & Stoljar, 2000; WHO, 1995; Wolf, 1990). 그러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성병, 성폭력, 임신, 유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지식제공과 더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능력 및 바람직한 성태도를 지니게 하여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Lee, 1994).

현재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교육의 방법도 다양하다(Kim, M. S., 1999; Kim, 1995; Lee, E. Y., 1997).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초중고를 거쳐 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실제로 대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받았던 성교육 내용에 관해 형식적, 교과서적, 이론적, 기본적인이라고 요약했으며 성교육이 막연하고 구체적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별효과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죄책감을 수반한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며 대학생들은 그들의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J. E., 1999; Han, 2000).

성에 대한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세대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기성세대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준에 이르렀다. 모든 교육이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수혜자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Kim, J. E., 199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고 그들의 성행동 양상을 분석하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성교육방법 및 내용을 조사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 접근방식을 수립하여 대학교육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학생들에게도 정확한 성지식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성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자율성 및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여 대학의 성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과 성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과 성관계 경험의 관계를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경험 실태와 성교육 요구를 조사하고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과 성경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남녀대학생 356명이었다. 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전문대학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target population), 서울과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근접모집단(accessible population)으로 하여 서울의 일개 전문대학과 경기도의 일개 전문대학으로부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학생을 임의 추출하여 총 57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70부가 회수(81.7% 회수율)되었으며 이중 불완전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356부가 분석 자료(75.7%)로 이용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213명(59.8%) 여학생 143명(40.2%)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가 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한 후 회수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 3. 연구도구

#### 1) 성지식

성지식 측정도구는 Hong(2003)의 성교육 및 성치료 전문가를 위한 워크샵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성지식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도구는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10문항, 임신 5문항, 피임 5문항, 인공유산(낙태) 3문항, 성병 9문항, 성생리 5문항, 자위행위 3문항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40문항의 성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위는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에 표기하도록 되어있고 체크한 것이 정답일 경우 1문항 당 2.5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표기한 경우는 0점을 배점하여 점수는 최소 0점, 최대 100점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89였으며 각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0.68, 임신 0.61, 피임 0.43, 인공유산(낙태) 0.64, 성병 0.70, 성생리 0.59, 자위행위 0.61 이었다.

#### 2) 성태도

대학생의 성태도 측정도구는 Kwon(1998)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에 의해 제작 되었다. 이 도구는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간호학과 교수 5인의 자문을 얻어 수정보완하여 대학생 10명에게 사전조사 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순결 5문항, 성행동 6문항, 성생리 6문항, 인공유산 3문항, 동성애 3문항, 음란물 5문항의 6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28에서 최고 140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남녀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67이었으며, 각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순결 0.50, 성행동 0.60, 성생리 0.50, 인공유산 0.64, 동성애 0.74, 음란물 0.62 이었다.

#### 3) 성적자율성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는 Chang(2002)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조절 10문항, 대응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최저 13에서 최고 65점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해석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성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개발 시 Cronbach's alpha는 0.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88이었으며 각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조절 0.88, 대응 0.58 이었다.

#### 4) 성경험

성경험은 성행위와 관련된 경험의 정도(Ahn, Chung, & Lee, 1997)로 이성과의 성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키스, 성관계, 자위, 성병, 피임,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개인의 모든 경험을 말한다.

본 설문지는 키스 1문항, 성관계 8문항, 자위 3문항, 성병 2문항, 피임 2문항, 임신중절수술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뒤 SAS program (version 8.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변수의 특성(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경험, 성교육 요구)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al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경험과의 관계는 ANOVA, t-test 및 던칸의 다중 비교검정(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을 이용하였다.
-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성지식 측정도구 정답률간의 차이분석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다

###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356명으로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13명(59.8%), 여학생이 143명(40.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5세(SD=2.53)였고 종교는 무교가 4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 27%, 천주교 12.1%, 불교 11%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311명(87.4%)이었고 대학생들의 210명(59%)이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86명(24.2%)은 '중하'로 평가하였다.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163명(45.8%), 어머니의 경우는 155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 2. 대상자의 성적 특성

대상자들의 음란영화와 비디오 시청의 경우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313명(87.9%)이었으며 시청 횟수는 '어쩌다 한번 본다'가 236명(66.3%)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3명(95.3%)이었으며 시청 횟수는 '어쩌다 한번' 147명(69%), '월 4회 이상' 23명(10.8%), '월 2회' 12명(5.6%), '월 1회' 11명(5.2%)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0명(76.9%)이었으며, 시청 횟수는 어쩌다 한번 89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성충동이 일어날 경우 성적욕구 해결 방법으로 '자위행위'

110명(30.9%), '충동을 못 느낀다' 99명(27.8%)이었으며, '운동' 75명(21.1%), '취미생활몰두' 61명(17.1%), '이성과 성교' 46명(12.9%)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는 보수적 142명(39.9%), 중간 147명(41.3%), 개방적 67명(18.8%)이었다.

####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및 성경험

##### 1) 대상자의 성지식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성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7점(±16.35)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성지식 점수는 53.6점(±17.50), 여학생의 경우 53.9점(±14.55)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성지식점수를 살펴보면 자위행위 72점(±28.41), 인공유산(낙태) 68점(±26.63), 피임 67점(±24.51), 임신 60점(±20.21), 성병 55점(±20.78), 성생리 51점(±19.08),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48점(±17.15) 순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영역과 피임영역은 대체로 정답률이 높았으며 여성생식기에 관한 내용은 남학생(56.7%)과 여학생(62.5%) 모두 정답률이 높은 반면 남성생식기에 관한 내용은 남학생(39.6%)과 여학생(39.9%) 모두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성생식기 내용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여자는 일생동안 배란할 난세포를 갖고 태어난다'가 22.8%였고,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처녀막은 성관계, 승마나 자전거를 탈 때 파열될 수 있다'가 88.8%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성지식 정답률 차이분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음낭(불알)의 온도는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 약간 높다'(x<sup>2</sup>=8.63, p=0.003), '남자는 사춘기 이전에는 발기할 수 없다'(x<sup>2</sup>=31.80, p=0.001), '임신을 위해서 여자는 성관계시 오르가즘을 느껴야 한다'(x<sup>2</sup>=7.76, p=0.005), '남자의 성기 크기가 발기시 5cm이상이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다'(x<sup>2</sup>=17.20, p=0.001),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결혼 후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x<sup>2</sup>=9.06, p=0.003), '자위행위는 결혼 후 불임을 초래 한다'(x<sup>2</sup>=8.63, p=0.003)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정자, 정액, 남성호르몬은 남자의 고환에서 생산된다'(x<sup>2</sup>=5.50, p=0.019),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하나씩 있다'(x<sup>2</sup>=11.16, p=0.001), '여자의 경우 요도와 질구는 다른 통로이다'(x<sup>2</sup>=7.96, p=0.005), '다음 월경 예정일전 12일에서 19일 사이가 임신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다'(x<sup>2</sup>=9.67, p=0.002), '유방이 클수록 임신가능성이 크다'(x<sup>2</sup>=10.87, p=0.001), '난자는 배란된 후 24시간 내에만 정자와의 수정이 가능하다'(x<sup>2</sup>=5.57, p=0.018), '콘돔을 사용하면 완전한 피임이 보장된다'(x<sup>2</sup>=8.83, p=0.003), '인공유산 후 여자는 불임이 될 수 있다'(x<sup>2</sup>=3.95, p=0.047), '인공임신중절은 최소한 7개월까지 괜찮다'(x<sup>2</sup>=8.52, p=0.004), '성병에

감염된 산모는 태아에게 그 성병을 감염시켜 기형아가 출산되기도 한다( $\chi^2=5.82, p=0.016$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성태도

대학생의 성태도 평균 점수는 3.09점( $\pm 0.33$ )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순결 3.09( $\pm 0.63$ ), 성행동 3.44( $\pm 0.59$ ), 성생리 3.14( $\pm 0.34$ ) 인공유산 2.66( $\pm 0.78$ ), 동성에 2.82( $\pm 0.95$ ), 음란물 3.04( $\pm 0.59$ )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3.15점( $\pm 0.34$ ), 여학생은 3.0점( $\pm 0.29$ )으로 남학생의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행동’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인공유산’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다.

‘순결’ 영역에서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는 3.59, ‘혼전 임신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3.5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남자는 정신적으로 순결하다면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아도 된다’ 1.99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남자의 육체적 순결에 관한 문항은 남학생의 경우 2.20, 여학생이 1.68로 남학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여자는 결혼 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는 3.23점 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3.04 여학생 3.68로 여학생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

‘성행동’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성행위는 더럽고 추한 것이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4.32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성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3.78점, ‘정신적인 사랑 못지않게 성행위도 중요하다’ 3.66점이었다. ‘성욕은 이성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2.67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생리’ 영역에서 ‘남자는 자위행위를 해도 좋으나 여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4.08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위행위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라는 문항에는 2.16점 ‘혼전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는 2.19이었다. 인공유산에서는 대체로 점수가 낮았으며 ‘낙태는 살인 행위이다’는 2.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동성애에 관한 문항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중 ‘동성애는 하나의 사랑행위로써 존중되어야 한다’ 2.59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음란물 문항에서는 제일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변태(성도착자)들만이 포르노를 본다’ 4.08점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성과 야한 대화를 나누면 자극적이고 팬찮을 것 같다’ 2.43점 ‘음란물은 성범죄를 유발시킨다’ 2.42점이었다.

결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음’ 155명(43.5%), ‘능력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됨’과 ‘꼭 해야 함’은 각각 87명(24.2%)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음’ 96명(45.1%), ‘꼭 해야 함’ 77명

(36.2%), ‘능력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됨’ 27명(12.7%)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능력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됨’ 60명(42%), ‘꼭 해야 함’ 10명(7%), ‘혼자 사는 것이 좋음’ 14명(9.8%)이 응답하였다.

출산에 대한 생각으로 ‘아기는 꼭 낳아야 한다’ 213명(59.8%), ‘아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다’ 97명(27.2%), ‘아기를 낳지 않을 것이다’ 22명(6.2%), ‘경제적인 이유로 낳는 것 보다 안 낳는 것이 낫다’ 24명(6.7%)으로 나타났다.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으로는 ‘결혼할 사이라면 무방’ 194명(54.5%), ‘결혼과 상관없이 좋다면 가능’ 104명(29.2%), ‘절대 안 됨’에 58명(16.3%)이 응답하였다.

남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로는 대상자중 215명(60.4%)이 ‘충동’이라고 응답하였고, ‘쾌락’에 196명(55.1%), 사랑 175명(49.2%), 호기심에 167명(46.9%)이 응답하였다. 여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로는 ‘사랑’ 221명(62.1%), ‘거절 못해서’ 154명(43.3%), ‘좋아함으로’에 148명(41.6%)이 응답하였다. 남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책임질 까봐’에 가장 많은 179명(50.3%)이 응답하였으며 ‘임신이 두려워서’는 95명(26.7%)이었다. 여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신이 두려워서’에 252명(70.8%)이 응답하였다.

본인이나 애인이 임신했다면 ‘낳아서 기르겠다’ 147명(41.3%), ‘모르겠다’ 128명(36%), ‘낙태수술을 한다’ 69명(19.4%)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혼전 성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85명(23.9%), ‘상관없다’ 70명(19.7%), ‘나와 상관없이 용납이 안된다’ 65명(18.3%), ‘미래를 위해 받아들일 것이다’ 57명(16.0%), ‘나도 경험 있으니 용서 한다’ 41명(11.5%), ‘내가 순결하므로 용납이 안 된다’ 30명(8.4%)로 대상자의 71.1%가 배우자의 혼전경험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3)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대상자의 성적 자율성 평균점수는 3.89( $\pm 0.58$ )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81점( $\pm 0.60$ ), 여학생의 경우는 4.00점( $\pm 0.53$ )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자율성 점수가 높았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조절영역 3.90점, 대응영역 3.85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난 문항은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쓸 것이다’ 4.31점이었으며 그 다음이 ‘나는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 할 것이다’ 4.18점, ‘나는 원치 않는 성교 요구 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것이다’ 4.10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성경험

대상자의 성경험을 살펴보면 키스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2명(73.6%),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148명(41.6%)이었

으며 남학생은 117명(55%), 여학생은 31명(22%)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은 '결혼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가 가장 많은 68명(46%)이었으며, 그 다음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서'가 17명(11.5%), '상대방 청에 못 이겨서' 14명(9.5%), '결혼상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서로 원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가 각각 13명(8.8%),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3명(2.0%)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16명(13.6%)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상대방청에 못 이겨서 9명(29%)으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는 '자신의 결정이므로 후회하지 않는다' 106명(71.6%), '부모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6명(10.8%), '더 이상 순결하지 않아 후회가 된다' 14명(9.5%), '사랑 없이 성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한다' 10명(6.8%)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는 '여관이나 모텔' 68명(45.9%), '본인 또는 상대의 집 54명'(36.5%), '비

디오방 10명'(6.8%)으로 응답하였다.

성관계 대상자와의 관계로는 '결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사귀던 사이'에 75명(50.7%),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사귀던 사이'는 48명(32.4%), '가볍게 사귀던 사이' 43명(29.1%), '매춘업종사자' 22명(14.9%), '1회성 미팅상대'에는 19명 (12.8%)이 응답하였다.

성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명으로 성관계 경험자의 12.2%였고,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남자의 경우 파트너) 32명(21.6%)이었으며,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0명(20.3%)이었다.

성관계시 성병예방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8명(39.2%)이었으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 64명(43%)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시 임신 예방조치는 '매번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6명(44.6%), '생각나면 한다'가 50명(33.8%), '전혀 안함' 20명(13.5%), '파트너가 알아서 하므로 신경 쓰지 않음' 11명(7.4%)으로 조사되었다. 임신 예방조치를 위해 사용하는 피임방법으로는 콘돔 92명(62.2%), 월경주기조절 15명(10.1%), 먹는 피임약 7명(4.7%)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에 대해 208명(58.4%)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92명(90.1%), 여학생 16명(11.2%)이 자위

<Table 1> Right answer ratio difference of sexual knowledge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N=356)

Contents	Right answer ratio			x <sup>2</sup>	p
	Total n(%)	Male n(%)	Female n(%)		
The sperm and semen, male hormone it is produced from the testis of the man.	36(10.1)	15 (7.4)	21(14.7)	5.50	0.019
The man produces the spermatozoon during lifetime and it puts out.	107(30.1)	67(31.5)	40(28.0)	0.49	0.482
The urethra and route where the semen comes out of the man and they draw and they are divided separately.	140(39.3)	88(41.3)	52(36.4)	0.88	0.348
The body it compares in the different region and the temperature of the testicles some is high.	127(35.7)	89(41.8)	38(26.6)	8.63	0.003
The man to previously adolescence it will not be able to erection.	229(64.3)	162(76.1)	67(46.9)	31.80	0.001
When it uses the condom, the contraception which is complete is guaranteed.	261(73.3)	144(67.6)	117(81.8)	8.83	0.003
When after sexual relation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which eats and there is contraception effect which is complete.	251(70.5)	153(71.8)	98(68.5)	0.45	0.503
The pregnancy is possible even with only sexual intercourse of once.	257(72.2)	152(71.4)	105(73.4)	0.18	0.670
When the male partner withdrawing the penis from the woman's vagina before he ejaculates and does not become the pregnancy.	163(45.8)	106(49.8)	57(39.9)	3.38	0.066
The existence duration of the spermatozoon which is assessed 48-72 hours is in the body.	199(55.9)	116(54.5)	83(58.0)	0.45	0.505
After artificial miscarriage the woman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sterility.	209(58.7)	116(54.5)	93(65.0)	3.95	0.047
The curettage by minimum 7 month is safe	151(42.4)	77(36.2)	74(51.8)	8.52	0.004
The artificial miscarriage(less than 2 month) does not injure the health of the woman.	203(57.0)	114(53.5)	89(62.2)	2.65	0.103
When masturbating, touching the genitals by the hand which be imbrued is a possibility of bringing the infiltration of the germ.	298(83.7)	175(82.2)	123(86.0)	0.93	0.334
It masturbates the before getting married and multi time and a possibility of having the normal sexual relation after getting married there is.	192(53.9)	134(62.9)	58(40.6)	17.20	0.001
The masturbation brings about the sterility after getting married.	218(61.2)	144(67.6)	74(51.8)	9.06	0.003

행위 경험이 있었다. 자위행위 빈도에 대해서는 주 1회가 55명(26.4%), 월 1회 미만인 55명(26.4%)이었다. 자위행위 후의 심리상태는 허탈감 145명(69.7%), 개운함 31명(14.9%), 기분 좋음 25명(12.0%)으로 조사되었다.

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계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성지식과 성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3, p=.0001$ ),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0, p=.001$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elation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r	p	r	p
Sexual Knowledge	.23	.0001	.20	.001
Sexual Attitude			-.01	.807

5) 성관계 경험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utonomy according to coitus

Sexual experienc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core	t	p	score	t	p	score	t	p
Coitus	Yes (n=146)	56.82	8.95	0.003	3.19	27.19	0.0001	3.95	6.79	0.01
	No (n=210)	51.57			3.02			3.79		

<Table 4> Comparison of needs of sex educ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Contents	Male n(%)	Female n(%)	$\chi^2$	p
Structure and Function of Reproductive system	74(34.7)	29(20.3)	8.70	0.003
Physical fuction(menstruation, ejaculation and wet dream)	115(54.0)	44(30.8)	18.67	0.001
Pregnancy and delivery	138(64.8)	82(57.3)	2.01	0.156
Induced abortion	90(42.3)	74(51.8)	3.10	0.078
Method of contraception	170(79.8)	120(83.9)	0.95	0.329
Venereal disease and AIDS	147(69.0)	92(64.3)	0.85	0.357
Sex Impulse(masturbation---)	96(45.1)	45(31.5)	6.62	0.010
Inclination of sex	80(37.6)	35(24.5)	6.70	0.010
Friendship of other sex	89(41.8)	38(26.6)	8.63	0.003
Response cycle of sex(male& female)	105(49.3)	46(32.2)	10.28	0.001
Technicque and knowledge of Sex	121(56.8)	45(31.5)	22.07	0.001
Trouble of sexual function	86(40.4)	35(24.5)	9.64	0.002
Sexual role and equality	92(43.2)	51(35.7)	2.02	0.155
Sex violence	117(54.9)	78(54.6)	0.01	0.943
Sex morals	113(53.1)	67(46.9)	1.32	0.251
Mean and responsibility of love	105(49.3)	67(46.9)	0.21	0.651
Sexual autonomy	95(44.6)	33(23.1)	17.21	0.001

6) 성교육 특성과 성교육 요구도

조사결과 대상자의 331명(93%)이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일처음 성교육 받은 시기로는 중학교 162명(45.5%) 고등학교 150명(42.1%)으로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시기에 성교육에 접했으며 지금까지 성교육 받은 수강시간은 2-3시간이 104명(29.2%), 4-5시간 82명(23%), 1시간 59명(16.6%)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성지식 습득경로는 친구가 146명(32.1%)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터넷 75명(16.5%), 교사63명(13.9%), 매스컴50명(11%), 전문서적 26명(5.7%), 부모12명(2.6%)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친구와 인터넷으로부터 성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190명(53.4%)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도움의 정도는 10점 만점에 5점 이하가 78명(50%)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127명(59.6%)이 여학생의 경우는 63명(44.1%)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82명(79.2%)이었으며, 적절한 성교육실시 학년은 259명(72.8%)이 1학년 시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적절한 성교육방법으로는 특강 221명(62.1%), 정규과목 66명(18.5%), 학교 의무실에서 질의응답 47명(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교육내용으로 '피임방법'에 대해 290명(81.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성병과 에이즈'는 239명(67.1%), '임신과 출산' 220명(61.8%), '성폭력' 195명(54.8%), '성윤리' 180명(50.6%), '사랑의 의미와 책임' 172명(48.3%),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 166명(46.6%), '인공임신중절' 164명(46.1%)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요구도 차이 분석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던 내용은 '인공임신중절'과 '피임방법'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Table 4>.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성관련 특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성교육 내용과 선호하는 교육방법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대학생들의 성실태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교육 경험과 정보습득에 관해 조사한 결과 대학생이 성교육에 처음 접한 시기는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때로 나타났으며, 성지식의 주된 습득경로는 친구와 인터넷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를 통한 성지식 획득은 낮고(Oh, 2001; Yim, 2002), 친구나 선배, 인터넷, 책이나 잡지를 통한 지식 습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hn, Chung, & Lee, 1997; Han, 2000; Lee, 1994). 최근 들어 컴퓨터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전달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성지식습득 역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성지식이라 함은 단순히 성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와 문화의 가치관과 태도영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해 부모나 교사가 성지식을 전달하는 비중이 증대되어야 하며 교사나 부모는 자녀나 제자에게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성지식을 체계화해야 한다.

조사결과 반수이상의 학생이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이전의 성교육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2000)의 연구에서도 남녀대학생에게 지금까지 받아온 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상당히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교육부 공인 성교육 교재(초등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단계까지)에서 성지식문제를 추출해서 대학생의 성지식을 측정한 결과에서 초, 중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학년별로 성지식에 차이가 없어 이렇다 할 성교

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받았던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초중고대학생의 단계별 성교육이 개발되어 좀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지식점수는 100점 만점에 53.7점(SD 16.35)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Nam(1999), Lee, E. J.(1997), Cho(2001), Kim(1996), Lee(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들은 사춘기를 지나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 되어 있고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 개방화된 성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에 관한 지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성지식 점수가 높은 영역으로는 자위행위, 인공유산, 피임이었으며 조사결과 피임영역의 문항은 대체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피임영역 점수가 낮게 나타난 Lee(2002), Yi (199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콘돔을 사용하면 완전한 피임이 보장 된다', '한번의 성교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하다', '성관계 후 먹는 응급피임약을 먹으면 완전한 피임 효과가 있다'의 문항에서 70%이상의 정답률을 보여 다른 영역에 비해 피임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외사정'에 관해서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좀더 정확한 피임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원하지 않는 임신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녀대학생의 성지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자위와 남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성생리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내용이지만 특히 성 활동에 비교적 능동적인 남학생의 경우는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조사결과 남녀대학생의 성지식 정도는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성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의 성태도 점수는 3.09점(SD 0.33)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Park(2002)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점수(3.25)와 비슷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하위영역별 성태도를 보면 '성행동' 영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성태도(3.44)를 보였으며 '인공유산' 영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태도(2.66)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인공유산 영역에서 실제적인 지식정도를 조사해 본 결과 남학생의 정답률은 48.1%, 여학생의 경우는 59.6%로 낮은 지식수준을 보여 보수적인 태도를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인공유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인 사랑 못지않게 성행위도 중요하다'에는 3.66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성행위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성욕은 이성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다수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응답하여 보수적인 생각을 표현하였다.

성생리에서 '남자는 자위행위를 해도 좋으나 여자는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자위행위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며, 혼전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위행위에 관한 태도를 자위행위에 관한 지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결혼 후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자위행위는 결혼 후 불임을 초래한다'에 대해 남학생에 비해 정답률이 낮았으며, 자위행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자위행위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도 자위행위에 대한 지식이 여학생보다는 높았지만 1/3정도는 자위행위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부모들로부터 잘못 받은 성교육의 영향과 보수적인 문화의 결과라고 하겠다.

순결 영역에서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 가장 개방적인 생각을 나타냈으며 가장 보수적인 문항은 '남자는 정신적으로 순결하다면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아도 된다'였다. 남자의 육체적 순결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여자는 결혼 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반드시 순결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3.23점으로 대체로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들의 혼전순결에 대한 생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순결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의 순결에 대해 서로가 더욱더 순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음란물에 관한 질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성과의 대화를 나누면 자극적이고 관촬을 것 같다'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음란물은 성범죄를 유발 시킨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낙태는 살인 행위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낮은 점수를 보여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보수적이었으며 그 중 '동성애는 하나의 사랑행위로서 존중되어야 한다'에 대해 2.59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의 41.6%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55%)이 여학생(22%)보다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대에 변천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1983;

Lee, 1994; Park, et al., 1995; Han & Ham, 2000; Jung, 2003). 이는 성개방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여성들의 의식변화로 사료된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성관계 경험률이 상승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뒷받침 되어야 할 성지식과 올바른 성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결혼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가 가장 많았으나(46%),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서'와 '상대방 칭에 못 이겨서'에도 각각 21%가 응답하였고, '상대방이 강제로'도 3명(2.0%)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서(Han & Ham, 2000)도 '강제로 끌려서'와 '피임에 빠져서'가 21.2%로 서로의 진정한 동의가 아닌 한쪽의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에 이끌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로 대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성관계 대상자와의 관계로는 '결혼상대로 생각하고 사귀던 사이'가 32.4%인 반면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상대'에도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고 1회성 미팅상대와 매춘업종사자에도 27%의 학생이 응답하여 대학생들이 사랑과 성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hn과 Kim(2000)의 연구에서는 성관계 대상자로 매춘업종사자에 응답한 사람이 없는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는 14.9%가 매춘업종사자에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가별게 사귀는 사이와 결혼상대자로 생각하고 사귀는 사이 모두 성관계 대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Yoon과 Lee(2002)의 연구결과도 남학생의 성경험 대상으로 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성가치관을 확립하여 어떤 외부조건에도 자기 스스로 방식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 동안 성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12.2%였고,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남자의 경우 파트너) 21.6%를 차지하고 있어 피임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인공유산 경험도 대상자의 8.4%로 조사되어 결혼 후 불임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피임의 중요성 강조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관계시 성병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대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성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 예방은 상대방과 본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교육하여 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성관계시 임신 예방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매번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6명(44.6%)으로 나타나 나머지 임신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원치 않

는 임신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임율은 대상자의 20%가 피임을 한다고 조사된 연구결과 보다 높았다 (Kang & Yoon, 1999). 임신 예방조치를 위해 사용하는 피임 방법으로는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지식을 조사한 연구(Lee, 1999)에서 10가지 피임 방법 중 콘돔을 제외한 그 외의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콘돔은 의도치 않은 임신과 성관련 질환 두 건강문제를 콘돔이라는 동일 예방행위를 통해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정확성 측면을 강조하여 권장 할 필요가 있다(Kang, 2001). 그러나 콘돔이외의 다양한 피임방법에 관한 정보제공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위행위에 관한 조사에서는 남학생의 90.1%, 여학생 11.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Yim, 2002).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자위행위 후에 허탈감을 가장 많이 느끼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자위행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학생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위행위에 관한 가치정립과 올바른 방법에 관한 실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결혼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24.2%는 능력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 하였다. 남학생의 80%이상이 결혼하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여학생의 50%이상이 혼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결혼을 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남학생 36.2%, 여학생의 7%가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남학생 30% 여학생 15%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Ahn & Kim, 2000)하여 대학생들은 결혼을 선택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혼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혼이 성장 잠재력을 축소하여 자기성장에 방해가 되는 반면 독신은 더 많은 자유와 생활방식에서 융통성이 보장되고, 더 큰 성적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신은 자신에 대한 책임만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S. Y., 1999). 또한 여성의 경우 고학력과 취업 등으로 경제적 능력 획득과 함께 독립적 생활의 조건이 형성되면서 직장생활과 가사노동의 이중역할에 대한 고통과 결혼으로 인한 자녀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자들은 결혼 후 출산에 대해 '아기는 꼭 낳아야 한다'가 59.8%로 나타나 나머지 40%는 2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하여 자식에게 희생하는 생활을 지양하는 것으로 '결혼은 하되 자녀는 두지 않고 두 사람의 생활을 즐긴다' 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흐름이라고 보여 진다. 혼전동거에 대한 생각은 '결혼할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54.5%, '결혼과 상관없이 좋다면 가능하다'가 29.2%, '절대 안된다' 고 응답한 사람은 16.3%로 연구대상자의 28%가 혼전동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Goo, 1997)보다 혼전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른 개방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충동'과 '쾌락'에 많은 대상자들이 응답하여 남학생들의 성적 충동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여학생의 혼전 성관계 이유로는 '사랑'이 가장 많았으며 '거절 못해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수동적 행동으로 초점이 맞추어 졌다. 여학생의 경우 거절 못해서라는 응답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데 대학생들의 혼전성관계에 성적 자율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된다. 대학생들의 성관계에 있어 남학생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학생은 사랑하는 애인의 충동적 행동을 거절하지 못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남학생들이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책임 질까봐'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성문제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대등한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본인이나 애인이 임신했을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 낙태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55%이상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지식, 행동에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자의 71.1%가 배우자의 혼전경험을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1992년 연구의 경우 애인의 성경험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4.7%, 1999년 연구에서는 64.6%로 나타났으며, Goo(1997)의 연구결과는 81.9%가 상대의 혼전경험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성지식, 태도와 자율성의 관계는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성지식이 높았으며 성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 태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 점수가 높았으며 성적 자율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Park(2002)의 연구에서도 성지식과 성태도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성태도, 성적 자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성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학생이 성관계 경험을 많이 하며 성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Park(2002)의 연구에서 성경험과 성지식, 성태도가 정적 상관관계임이 나타난 결과와 같은 결과라 하겠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 자율성

점수가 높은 것은 성관계 경험을 통해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자신의 대처방법과 의지, 자부심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 조사에서는 79.2%가 대학생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Lee(2002)의 98.4%, Lee(1994)의 90.5% 보다는 낮았고 Moon(1999)의 80.1%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들에게 성교육 계획시 1학년에 특강이나 정규과목으로 교육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성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성교육 내용으로는 '피임방법'을 가장 많은 학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성병과 에이즈', '임신과 출산', '성폭력', '성윤리', '사랑의 의미와 책임',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2)의 연구에서도 피임이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도 '피임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에 비해 많은 수의 남학생이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Han(2000)의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성교육 주제로 실제적 성생활과 성관계(58.6%, 43.0%)라고 응답하여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요구도 차이분석에서 대부분이 남학생의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성에 관해 더 관심이 많고 능동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이 피임에 관한 지식을 원하는 것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피임에 관한 좀더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자율성,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성지식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의 성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지식 점수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하위영역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으로는 '자위행위', '인공유산', '피임'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자위와 남성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성생리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지식수준이 높았으나 인공유산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 점수는 3.09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성행동' 영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으며 '인공유산' 영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학생들의 41.6%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학생(55%)이 여학생(22%)보다 성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중 39.2% 이상이 성관계시 성병 예방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50% 이상이 임신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1회성 미팅상대자와 매춘업종사자와의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동적인 성관계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18명(12.2%)이 성병경험이 있었으며,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90.1%, 여학생의 11.2%가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생들은 자위행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남학생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의 40%는 결혼 후 출산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성관계를 하는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충동'과 '쾌락'이며, 여학생들의 경우는 '사랑'과 '거절 못해서'가 그 이유로 조사되었다.
- 대학생의 대다수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교육 내용으로 '피임방법'과 '성병과 에이즈', '임신과 출산', '성폭력', '성윤리', '사랑의 의미와 책임',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성관계를 위한 기술과 지식'과 같은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피임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성지식, 성태도 및 성적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성지식과 성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3$ ,  $p=.0001$ ), 성지식과 성적 자율성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0$ ,  $p=.001$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t=8.95$ ,  $p=.003$ ), 성태도( $t=27.19$ ,  $p=.0001$ ), 성적 자율성( $t=6.79$ ,  $p=.01$ )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성 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학생에게 실제적인 성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대학생들은 성에 관해 교육하는 사람

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성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가 보수적인가 어떤 것이 옳은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본인의 가치관인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 성지식이 많다고 해서 조속하지 못한 여자로서 보는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바꾸어야 한다. 연구결과 성 지식 높을 경우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점수가 높아지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기본적인 성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자율성과 성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하도록 하여 올바른 성행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성행동에서 중요한 요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동에서 자기의 주관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했는가 중요하다. 보수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에 관한 무지로 타인의 의도대로 수동적인 성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연계되어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대학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내용에 성행동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과 책임감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제언한다.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Ahn, H. S., & Kim, I. O. (2000).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nd lif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Kangwon.
- Ahn, Y. S., Chung H. J., & Lee, J. S. (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Korean Life Scie Res*, 15, 137-154.
- Chang, S. B.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8(1), 106-115.
- Cho, S. H. (2001).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 sexuality in boy's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Goo, E. S. (1997). A study of sexual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Student life of Cheongju University*, 19, 49-63.
- Han, K. S., & Ham, M. Y. (2000).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 toward sexual behavior. *J Korean Acad Society Nurs Educ*, 6(1), 115-131.
- Han, S. S. (2000). *Sex related attitude and sources of information college student in tae-jeo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Hong, S. M. (2003). Checklist of sexual knowledge, Paper presentation for specialist of sex education and sex therapy: Seoul.
- Jeon, Y. K. (1999). *A study on the sexual consciousness and behaviour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the capital area of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 Jung, Y. M. (2003).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in an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usan.
- Kang, C. H. & Yoon H. S. (1999). A study on sex knowledge and sex related behaviour of college students in capital circle. *Korean Shinheung College*, 22, 333-360.
- Kang, H. S. (2001). *An explanatory model of condom 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Y. O. (1983).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H. K. (1996). *A survey on the sex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 Kim, J. E. (1999).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and the unmet needs for sex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i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J Korean Acad Society Nurs Educ*, 5(2), 232-249.
- Kim, J. S. (1995). *The effects of sex education on the primary schoolers'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M. S. (1999). *The effect of sex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girls upon their attitudes toward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Kim, S. Y. (1999). *Marriage and family*. Seoul: Hakgisa
- Kwon, H. O. (1998). *A study on the pattern of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s: Q-methodological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 Lee, E. J. (1997). *A study on knowledge, behaviour in sex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ungnam.
- Lee, E. Y. (1997). *The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deliquent adolescents in their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Lee, H. S. (2002).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of one women's college. *J Korean Acad Society Nurs Educ*, 8(1), 131-144.
- Lee, I. S. (199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experience in sex and the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eoul.
- Lee, S. S., Yoon, J. H., & Lee, M. W. (2002). The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of sexual harassment based on a study of students at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 Student Guidance*, 24, 89-135.
- Lee, Y. J. (1999). A study on the contraception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gi-Do. *Korean Shinheung College*, 22, 333.
- Lee, Y. W., Park, M. R., Song, M. S. Yoo, J. H. Choi, S. N., Han, Y. M. & Hwang, Y. J. (1997). Sex knowledge and need for sex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27(1), 26-35.
- Mackenzie, C., & Stoljar, N. (2000). *Relational autonomy, feminist perspectives on autonomy, agency, and the social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3-32.
- Moon, J. W. (1999). *A study on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mong various university groups for sex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m, M. H. (1999).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J Korean Community Nurs*, 10(1), 239-251.
- Oh, S. G. (2001). *A survey and study on level of knowledge on sex of and demand for sex education by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min University: Seoul.
- Park, M. S.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toward sex and needs about sex educ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Pusan.
- Park, H. S., Lee, J. S., Park, Ch. A., & Jeoung, M. J. (1995). Premarital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the youth. *Korean Home Econs Assoc*, 33(6), 11-23.
- WHO (1995). *Teaching modules for basic education in human sexuality*. HIV/AIDs reference library for nurses, Vol. 7, Manila 5-14.
- Wolf, S. (1990).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3-22.
- Yi, E. J. (1990). A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need for sex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Yim, Y. S. (2002).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medical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